



청년 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문제

글/ 김철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01

들어가며

청년 노동자는 대부분의 법에서 18세 미만의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4세 이하도 18세 미만과 업무적 특성이 비슷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24세 이하를 청년 노동자로 보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24세 미만의 노동자를 청년 노동자로 보도록 하겠다. 청년 노동자들은 고용기간이 짧다는 특성이 있는데, 이 때문에 업무상 질병재해보다 사고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도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24세 이하 재해자수는 4,054명이다. 전체 재해자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진국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경미한 사고재해는 성인 노동자보다 청년 노동자에게 더 빈발하고 있으며, 청년 노동자의 사회적 발언권이 약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많은 재해들이 은폐됐을 가능성이 있다.

02

업무상 사고재해를 유발하는 청년노동의 특성

패스트푸드점에서 볼 수 있듯이 청년 노동자는 캐셔업무 뿐만 아니라 조리, 청소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청년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과 관련된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우선 단기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다양해 업무상 재해사고에 쉽게 노출된다.¹⁾ 또 성인 노동자의 위험업무를 청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빈번하다.²⁾ 아울러

청년 노동자의 대부분은 임시직이고 이로 인해 업무통제권과 자율성이 떨어지며, 결과적으로 사고 위험성을 줄이는 조절능력이 떨어진다.³⁾ 청년 노동자의 개별적인 특성이 업무상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몸집이 작은 경우 성인에 맞추어져 개발된 장비나 공구를 사용하게 되면 사고위험성이 높아진다.⁴⁾ 두뇌발달에 있어서 전전두엽 피질의 성숙 지연으로 자기 감정조절 발달이 지연되거나 림빅 시스템이 관여하는 보상심리의 변이 또한 사고 위험성을 높인다.⁵⁾ 상황에 따라 사고위험성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혼자 일할 때는 성인에 비해 사고위험성이 높게 나타나지 않지만 또래 집단과 함께 일할 때 사고위험성이 높아진다.⁶⁾ 남성의 경우 사회적으로 부여된 남성상을 과시하기 위하여 이른 나이에 높은 근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안전에 소홀한 경우도 있다.⁷⁾

작업 특성 중에서는 비효율적인 작업배치, 빈번한 위험노출, 과중한 노동, 관리자의 안전에 대한 의지결여 등이 위험요소로 꼽히며,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서는 인종적 소수자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이 사고발생률을 높이는 인자로 조사되었다.⁸⁾

03 청년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활동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제정된 아동노동법(18세 미만 대상)과 국립 직업안전연구소의 안전보건기술지침 등으로 청년노동을 보호하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과 다르게 연방정부에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정하고 상세한 내용은 주정부가 정하고 있다. 캐나다 산재보상위원회 연맹에서는 청년 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 문제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National Government/WCB Young Worker Health & Safety Initiatives/Program Inventory 2012-2013'를 발간하였고 여기에는 각각 청년 노동자, 사업주, 부모와 후견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적인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가 2020년까지 15세부터 19세의 청년 노동자의 상해를 10% 줄이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기관과 함께 '청년노동 업무상 사고재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또한 청년노동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있다. 단적인 예로 전체적인 청년노동에 대한 연구와 정보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노동자라는 인식보다 학생이라는 인식이 강해 일부 시민단체를 제외하고는 청년 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문제를 중요시 여기고 있지 않다.

04 사업장의 청년 노동자 보호

반도체 같은 대형 전자산업에서는 오퍼레이터라고 불리는 기계장치 조작자가 필요하다. 현장을 보면,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은 수많은 청년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일을 배우고 있다. 그들을 면담하다 보면 2교대 근무에 들어가지도 않고 업무를 배우는 과정인데도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처음으로 집을 떠나 낯선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된 것이다. 이후 본격적인 2교대 근무가 시작되면 그들의 건강상태는 더 나빠지고 결국 많은 이들이 퇴사하게 된다. 이는 청년 노동자와 사업장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이다. 특히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구인난이 심해질 것을 감안하면 사업장이 더 적극적으로 청년 노동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에서는 청년 노동자가 미성숙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적응기간을 충분하게 주고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기 위해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2교대나 3교대 사업장의 경우에는 수면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근무 주기를 세심하게 짜고 기숙사 환경개선을 해야 한다. 실제 건강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주선하고 거기에서 나온 사후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청년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성인들의 관심이다.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을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 좋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내 조카'라는 심정으로 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01 Davis L, Frank E [1997]. Work-related injuries to Massachusetts adolescents: findings from the Massachusetts SEN-SOR program. Morgantown, West Virginia. Paper presented at the National Occupational Injury Symposium.

02 Workers' Compensation Board of British Columbia [2001]. Young workers and risk factors for workplace accidents. Vancouver, BC: Workers' Compensation Board of British Columbia.

03 Quinlan M, Mayhew C, Bohle P [2001]. The global expansion of precarious employment, work disorganization, and consequences for occupational health: a review of recent research. Int J Health Serv 31(2):335-414.

04 Feldman DE, Shrier I, Rossignol M, Abenhaim L [2002]. Work is a risk factor for adolescent musculoskeletal pain. J Occup Environ Med 44(10):956-61.

05 Spear L [2000]. The adolescent brain and age-related behavioral manifestations. Neurosci Biobehav Rev 24:417-63.

06 Gardner M, Steinberg L [2005]. Peer influence on risk taking, risk preference, and risky decision making in adolescence and adulthood: an experimental study. Dev Psychol 41(4):625-35.

07 Kjellberg A. [1998]. Men are gendered also. In: Kilbom A, Messing K, Thorbjörnson C, editors. Women's health at work, Solna, Sweden: Arbetslivsinstitutet, pp. 279-307.

08 Runyan Smith PM, Breslin FC [2013]. Risk factors for nonfatal work injury for young workers: a review of two relevant literatures. Health and safety of young workers: proceedings of a U.S. and Canadian series of symposia 80 - 104